

지문을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과 원칙

단순 연도별 기술 문제 배열이 아닌 동일한 구조와 행동을 보이는 기술 문제들을 패턴화
그리고 단순 문제 해설이 아닌 지문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을 길러주는 수능 국어 기술 분석서
8개년 수능 국어 기술 문제들을 통해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는지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자

독서 심화편



이동권 수능국어 기술분석서

도란도란



서문

‘OO 기출 문제집 보고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어요’

‘XX 선생님 강의 듣고 이번 수능 1등급 받았습니다’

수능 국어는 지문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집들은 지문이 아닌 문제에 대한 해설만 제공할까요? ‘지문만 잘 읽고 풀어도 문제는 풀린다는데 왜 문제에 대한 해설만 제공하는가’ 이것이 제 문제의식의 출발점입니다. 게다가 문제에 대한 해설도 ‘X문단 X번째 줄에 근거가 있다’ ‘아까 2문단에서 확인했으니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와 같이 친절해보이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해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답의 근거를 확인하면 무슨 도움이 되나요? 몇 번이 틀린 선지이고 맞는 선지이고를 분석해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아 정말 지문에 답이 있는데 내가 못 찾았네’ 라는 자괴감밖에 들지 않습니다. 형형색색의 형광펜과 볼펜들. 또는 수많은 맞고 틀림의 표시들. 그것뿐이지 않았습니까? ‘다음 지문을 읽을 때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행동을 교정해주지 못한 해설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왜 이걸 답으로 선정했을까. 내가 뭘 주의깊게 읽었어야 이 선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가 아닌 ‘왜 이게 틀렸을까? 지문에서 확인해야지’ 라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책과 칼럼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옆에서 강의처럼 설명해주지만 어쩌 지문을 읽는 시간보다 그 칼럼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 지문 내용을 이해하려고 지문의 두 세배의 시간을 들여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까 봤던 내용이었지? 아 이렇게 되는거였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해설자만 ‘아~ 그런거구나’라고 말하면서 계속 읽어나갑니다. 더군다나 이 해설은 정제되지 않은 문장이라 이해하기도 버겁습니다. 해설자와 독자의 이해 수준 차이도 고려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해설이 계속 됩니다. 물론 이해가 잘되는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칼럼을 읽고 지문을 마침내 이해했지만 그저 그것뿐입니다.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마치 지식처럼 이해했을 뿐입니다. 수능 국어는 과학탐구나 사회탐구와 달리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데 말이죠. 결국 다음 지문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해해야 하고 새로운 지문을 만나게 되면 내용을 이해해지 못했다고 또 누군가의 강의와 해설을 찾으러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강사님들이 설명하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아~ 그런거구나! 이렇게 됐으니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돕습니다. 어떤 강사님들은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배경 지식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여러분도 들으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다음 새로운 지문을 읽을 때 도움이 되나요? 차라리 포털 사이트에 본인이 모르는 주제를 검색하거나 스스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도식을 활용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독해력과 이해력이 향상되지만 남이 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문을 읽었던 태도를 바탕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읽어야겠다’라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해설해주는 책과 선생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지식에 대한 이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강사님들이 설명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와 콘텐츠를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니 ‘기출을 다 풀었는데 답이 기억나서 도저히 못 풀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는 풀이를 보지 않음으로써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길러진다고들 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을 들음으로써 본인의 독해력과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중요한 기출 문제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와 같이 지식을 쌓으면 도움이 되는 분야는 강사분들이 전달해주는 지식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 됩니다. 정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죠. 그런데 국어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어는 이해력과 독해력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이 시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시중의 많은 해설서들과 강사분들은 이해력과 독해력이라는 추상적인 능력만 강조하여 학생들을 ‘로또 국어’에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이 좋은 학생들은 1년 만에 이해력과 독해력이 증진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해력과 이해력이 길러졌다고 해도 수능 날 1교시에 안정적으로 자기 실력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말 그대로 ‘로또 국어’에 가까운 실태입니다.

‘독서백편의자현’ ‘수능 때까지 읽고 또 읽어라’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수능 국어 시험’에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적어도 현장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분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 서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은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가지고 1년을 재도전하는데 이해력과 독해력이라는 추상적인 ‘능력’에만 매달려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다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즉,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면 모든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맙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책은 시중의 다른 해설서들과는 다르게 지문을 올바르게 읽어가는 방법과 추상적인 독해력이 아닌 구체적으로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 되길 바랍니다.

이동글 배상

책의 구성과 특징

‘이동글 수능국어 기출분석’은 일반 기출 문제집들과는 다르게 글의 구조별로 기출 문제들을 재구성했습니다. 연도별로 구성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재별로 구성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들은 제재의 친숙성밖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출 분석을 위해서는 연역적으로 같은 구조끼리 묶어서 지문을 읽어보고 분석하셔야 합니다.

책의 구성은 크게 병렬, 통시·순서·과정, 사전 정보, Q&A, P&S, 복합으로 나누었습니다. 기본편에서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병렬 구조**입니다. 글의 가장 기본 구조로 글을 이해하는 토대를 닦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통시·순서·과정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를 바탕으로 시대별로 그리고 순서와 과정 별로 글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이 **사전 정보 구조**입니다. 앞서 병렬과 통시 순서 과정이 일정한 틀 안에서 글을 구분하면서 읽는 것이었다면 사전 정보 구조는 틀에서 벗어난 변칙 구조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편에서는 글의 구조에서 벗어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아이처럼 질문과 대답을 하는 **Q&A 구조**를 배웁니다. Q&A를 배우고 나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인처럼 **P&S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배우고 나면 이 모든 구조가 섞여있는 **복합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수능 국어의 기본이 완성됩니다. 이후 읽는 글에서는 구조를 신경쓰기보다는 글의 방향 정보와 핵심 그리고 정보 처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글의 구조는 글을 잘 읽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글을 조감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문해제

지문 해제는 구구절절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지양하였습니다. 그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문의 내용에 대한 지식 전달이 되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지문보다 오래 시간을 쓰면서 해설을 읽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는 다시 그 지문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필요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문장을 누군가가 해설 해준다고 해서 다음에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스스로 지문 이해에 힘쓰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로**, 해설자의 사고방식을 읽는다 해도 절대 그렇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해설자가 말이나 글로 풀어쓰는 것을 우리는 시험 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글 읽는 원칙과 방향성만 뽑아내고 수많은 지문을 스스로 읽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해설

문제 해설에서 몇 문단 몇 번째 위치에 정답의 근거가 있다는 식의 해설을 지양하였습니다. 수능 시험은 글을 읽음으로써 정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모든 글의 정보를 머릿속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설에 O문단 X번째 줄에 답의 근거가 있다고 제시하면 정보의 범주를 헤아리지도 못한채 바로 시야가 O문단 X번째 줄에 꽂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의 위치를 학생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문과 선지를 일대일 대응하는 습관을 버리게끔 교정해줄 것입니다. 다만 지문 해설 부분에서 문단 별로 나누고 정보의 범주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해설 부분에서도 논리적으로 해설하였기 때문에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COMMENT

지문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고 방향을 잡아주는 코멘트를 부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독해포인트

글을 읽어나감에 따라 활용하면 좋을 실전적인 팁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숙달하여 앞으로 글을 읽을 때 활용하면 글을 읽는 습관이나 문장을 읽어나가는 자세가 교정될 것입니다.

실전적인 공부방법

수능 국어는 독해력과 이해력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국어를 가르칠 때 주로 독해력만 강조합니다. 독해력만 강조해서는 절대 안정적으로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독해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능력’이라서 수능 시험 당일까지 뜬구름 잡는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독해력이라는 것이 1년 내에 증진되지 못한다면 결국 1년을 허비하는 셈입니다. 또한 독해력이 증진되더라도 수능 시험장에서 발휘되지 못한다면 역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독해력과 이해력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에 모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문과 문제를 시간 제한을 두고 풀어봅니다. 시간 제한을 두는 이유는 시험의 특성상 제한 시간 내에 자신이 어떠한 사고 과정으로 읽고 푸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채점을 하지 않고 다시 지문과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시간 제한 없이 다시 풀어본다는 점입니다. 다시 지문을 천천히 읽되 밝은 형광펜을 하나 준비하셔서 자신이 이해가지 않는 문장을 모두 형광펜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답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지문 해설을 정독합니다. 이때 해설은 자신이 올바르게 글의 핵심을 잡고 정보를 처리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읽어나갑니다. **네 번째**는 맞힌 문제 해설을 정독합니다. 고쳐서 맞았다면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고쳤는데도 틀렸다면 지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렇게 채점이 끝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부분을 읽어내지 못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를 적어둡니다. 단, 틀린 문제에 대한 해설은 2-3회독 전까지 보지마십시오.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 합니다. 평가원만큼 좋은 문제가 없기에 바로 해설을 보게 된다면 기출을 통한 사고력을 훈련할 수 있는 콘텐츠를 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어차피 틀린 문제의 해설을 보게 되더라도 다음 지문이나 문제 풀 때 지장이 없고 해설을 보더라도 본인의 사고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책의 1회독이 끝나면 2회독을 시작합니다. 새로 교재를 사셔도 되고 기출을 구해서 프린트하셔도 됩니다. 이때 지문을 다시 읽고 앞서 형광펜을 칠했던 문장을 읽어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가 자신의 독해력과 이해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1회독 때 형광펜 칠해져있는 문장이 비로소 이해가 간다면 자신의 독해력과 이해력이 증진되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수능 때까지 형광펜 칠해져있는 문장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개별적인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문장은 지문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장 자체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닌 문단과 글 속에서의 문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추상적인 독해력과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해하지 못한 문장에 대해 구체적인 해설을 보게 된다면 독해력과 이해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소중한 문장들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해되지 않는 문장을 타인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수능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낯선 지문의 새로운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1회독 때 이해가지 않던 문장들이 나중에는 이해가 되는 경험을 본인이 반복적으로 겪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과 깨달음이 결국에는 지문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낯섬에 대한 적응력, 읽지 못했던 문장에 대한 극복 경험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점수에 반영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은 국가 단위로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수능 당일 아침에는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연착됩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뉴스에서까지 수능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수능 당일 아침에는 부모님이 응원하시고 고사장 정문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응원을 펼칩니다. 평소 보던 모의고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1년에 있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여러분들의 대학이 결정되는 셈이죠. 게다가 수능 국어는 긴장감이 극도로 달해있는 1교시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히, 평소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수능 시험장가니까 막 읽게 되고 긴장에 달해서 안 읽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기껏 1년간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너무 막막하지 않나요? 능력이 나타나면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낮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또 국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력이 절반으로 떨어지더라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 자체에 집중하면 모든 지문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행동 자체에 집중하면 지문의 패턴은 늘 똑같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지문의 방향 정보를 잡아서 핵심 위주로 읽으셔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핵심이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요즘 수능 국어의 추세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정보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기억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적어도 글의 방향 정보를 잡아서 핵심이라도 읽어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글의 핵심을 잡는 훈련을 하셔야 하고 미시적으로는 여러 가지 독해할 때 유용한 행동들을 활용하여 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행동들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해설을 읽으면서 ‘두 가지 대상이 서술되면 공통 기준점을 설정하고 비교대조하자’ ‘시기가 나오면 구분하자’ 와 같이 의식적으로 계속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국어가 더 이상 추상적인 과목이 아니라 명확성이 부여되는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독해력과 이해력이 증진되는 것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르게 됨으로써 더 이상 시험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저 정보 처리를 할 뿐이니깐요.

‘이동글 수능국어 기출분석’은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행동 패턴을 요구하는 지문을 묶어서 글의 방향성과 구조에 따른 행동 요령을 익히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독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해설이 아닌 구체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텍스트는 모두 경험이고 훈련이 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불분명한채 읽어나가는 텍스트는 모두 시행착오의 과정이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시길 바랍니다.

Q&A

| No. | 연도별 | 주제 | 문제 | 해설 |
|-----|----------|----------|----|----|
| 1 | 2012. 09 | 진리란 무엇인가 | 12 | 2 |
| 2 | 2012. 수능 | 소리 그늘 | 13 | 5 |
| 3 | 2014. 06 | 단안 단서 | 14 | 8 |
| 4 | 2014. 09 | 미술 종말론 | 15 | 10 |
| 5 | 2013. 06 | 수분 퍼텐셜 | 16 | 13 |
| 6 | 2015. 09 | CPU 스케줄링 | 17 | 16 |
| 7 | 2014. 09 | 각운동량 | 18 | 19 |
| 8 | 2015. 수능 | 슈퍼문 | 19 | 22 |
| 9 | 2014. 수능 | 베토벤의 교향곡 | 20 | 25 |
| 10 | 2015. 09 | 점탄성 | 21 | 28 |
| 11 | 2014. 예비 | 태양 에너지 | 22 | 31 |
| 12 | 2012. 06 | 근섬유 | 23 | 34 |
| 13 | 2017. 수능 | 음악적 아름다움 | 25 | 37 |

P&S

| No. | 연도별 | 주제 | 문제 | 해설 |
|-----|----------|--------------|----|-----|
| 1 | 2016. 09 | 소비자 정책 | 28 | 44 |
| 2 | 2014. 09 | CT | 30 | 48 |
| 3 | 2013 수능 | 귀납의 논리적 문제 | 31 | 51 |
| 4 | 2016. 06 | 금전적 제재 수단 | 32 | 54 |
| 5 | 2014. 예비 | 위치 추정 범위 | 33 | 58 |
| 6 | 2012. 수능 | 외부성 | 34 | 61 |
| 7 | 2013. 수능 |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 35 | 63 |
| 8 | 2016. 수능 | 운에 따른 도덕적 평가 | 36 | 66 |
| 9 | 2017. 09 | 사단 법인 | 38 | 69 |
| 10 | 2017. 수능 | 보험 | 39 | 73 |
| 11 | 2012. 수능 | 기약의 의미 | 41 | 78 |
| 12 | 2015. 09 | 정책 결정 | 42 | 81 |
| 13 | 2012. 09 | 한계 비용 | 44 | 84 |
| 14 | 2015. 06 | 책임부담 | 45 | 87 |
| 15 | 2015. 수능 | 공공 서비스 | 46 | 90 |
| 16 | 2014. 09 | 소송 | 47 | 93 |
| 17 | 2014. 06 | 책임 부담 원칙 | 48 | 96 |
| 18 | 2014. 수능 | 심신 일원론 | 49 | 99 |
| 19 | 2015. 06 | 인센티브 계약 | 50 | 102 |
| 20 | 2013. 06 | 디스크 스케줄링 | 51 | 105 |
| 21 | 2014. 수능 | CD 드라이브 | 52 | 108 |
| 22 | 2016. 수능 | 귀납의 논리적 한계 | 53 | 112 |
| 23 | 2014. 06 | 저작물의 공정 이용 | 55 | 116 |
| 24 | 2015. 수능 | 디지털 영상 | 56 | 119 |

복 합

| No. | 연도별 | 주제 | 문제 | 해설 |
|-----|----------|----------------|----|-----|
| 1 | 2013. 09 | 공자의 예 | 58 | 124 |
| 2 | 2017. 06 | 유비논증의 유용성 | 59 | 127 |
| 3 | 2014. 06 | 플래시 메모리 | 61 | 130 |
| 4 | 2016. 06 | 지문 인식 시스템 | 62 | 133 |
| 5 | 2017. 06 | 인공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 64 | 136 |
| 6 | 2012. 06 | 진공관의 문제 | 66 | 140 |
| 7 | 2016. 09 | 설명 이론 | 67 | 143 |
| 8 | 2019. 수능 | 법률 효과 | 69 | 146 |
| 9 | 2019. 06 | 법규 | 71 | 151 |
| 10 | 2013. 수능 | 공적 연금 제도 | 73 | 155 |
| 11 | 2019. 수능 | 가능세계 | 74 | 158 |
| 12 | 2019. 06 | 검사용 키트 | 76 | 162 |
| 13 | 2014. 수능 | 분광 분석법 | 78 | 167 |
| 14 | 2018. 06 | 수기치인 | 79 | 170 |
| 15 | 2015. 수능 | 헤겔과 뒤르켐의 사회 이론 | 81 | 176 |
| 16 | 2019. 09 | 해시함수의 특성과 이용 | 82 | 179 |
| 17 | 2018. 수능 | 정부의 정책 수단 | 83 | 182 |
| 18 | 2019. 09 | STM | 85 | 187 |
| 19 | 2014. 예비 | 중간층의 변화 | 87 | 191 |
| 20 | 2016. 09 | 사색적 삶 | 88 | 194 |
| 21 | 2017. 09 |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 | 90 | 198 |
| 22 | 2019. 06 | 이익과 최한기의 인체관 | 92 | 202 |
| 23 | 2019. 수능 | 우주론 | 94 | 206 |
| 24 | 2013. 06 | 위임 방식 | 96 | 211 |
| 25 | 2015. 06 | 정합설 | 97 | 214 |

이동글수능국어기출분석

문제편 03

복합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㉔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㉕ ㉖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㉗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㉘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㉙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㉚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㉛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㉝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㉞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66.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2018. 수능

[1문단]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㉔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지문 해제

정책 수단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정책 수단은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고 하니 네 가지가 병렬로 구성되면서 여러가지 특성을 서술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정책 수단의 특성 | | | |
|-----------|-----|-----|-----|
| 강제성 | 직접성 | 자동성 | 가시성 |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지문 해제

네 가지 정책 수단의 특성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었다. 각각 정의와 사례로 똑같이 짝을 맞춰 서술되고 있으므로 사례를 통해 정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자.

| | 정의 | 사례 |
|-----|--|-------------------------|
| 강제성 |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 | 유해 식품 판매 규제 |
| 직접성 |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 | 정책을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 |
| 자동성 |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환경과에서 시행 |
| 가시성 |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 |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 |

COMMENT

정부는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고 한다. 1문단에서 정책 수단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내용에 대해 읽어 나가면 되겠다.

[2문단]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지문 해제

정책 수단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본다는 것은 사전 정보 구간으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정책 수단 선택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 사전 정보 구간의 정보들을 잘 정리하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㉔과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㉔노출될 수 있다.

지문 해제

- ① 환율의 개념을 서술하면서 ‘장기적’과 ‘단기적’의 어구를 짝지어 이항관계를 구성하자.
- ② 환율의 단기적 양상은 문제점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 환율의 변화 양상 | | |
|-----------|-----------------------|--------------------------|
| 장기적 | 기초 경제 여건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 | |
| 단기적 | P |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 |
| | |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도 변동 폭이 큼 |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지문 해제

P를 구체화하고 있다. 장기적과 단기적 중 단기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버슈팅의 정의를 서술하고 있다.

| P | |
|------|-------------------------------|
| 오버슈팅 |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 |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지문 해제

P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P의 원인이 두 가지가 제시되었으니

이에 대해 병렬적으로 구성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 |
|----------|--------------------|
| P의 원인 | 물가 경직성 |
| |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

[3문단]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지문 해제

- ❶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는 것은 또 사전 정보 구간으로 들어가는 흐름이다. 그러나 핵심은 이 모든 정보가 결국은 정책 수단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 ❷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읽어나가되 앞서 설정한 P가 단기에서의 환율 문제이니 단기의 환율 조정을 중점적으로 읽어나가야한다.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지문 해제

물가에 대해 단기와 장기로 어구의 짝을 맞춰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어 나가자.

| | |
|----|----------|
| | 물가 조정 |
| 단기 | 경직적 |
| 장기 | 신축적으로 조정 |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지문 해제

‘반면’으로 물가와 환율이 단기에서 내용이 대비되고 있다. 환율 또한 단기와 장기로 짝을 맞춰서 생각할 수 있겠다. 물가는 경직적인데 환율이 신축적이니 이러한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는 것은 P의 첫 번째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 | |
|----|----------|
| | 환율 조정 |
| 단기 | 신축적으로 조정 |
| 장기 | 신축적으로 조정 |

독해 포인트

보조사 ‘도’를 생각해보자. 환율은 단기에서 ‘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니 장기에서도 신축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지문 해제

단기의 환율에 이어 이번에는 장기에서의 환율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오버슈팅은 환율의 단기적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장기에서의 환율은 핵심과 다른 범주라고 생각하고 정리만 해주면서 글을 읽어나가면 되겠다.

| 장기에서의 환율 (구매력 평가설) | | |
|--------------------|---------------------|----------------|
| 균형 환율 | 자국 물가 수준 / 외국 물가 수준 | |
| 국내 통화량 증가하여 유지 | 자국 물가 ↑ 장기 환율 ↑ | |
| | 실질 통화량 | (통화량 / 물가) 변화X |

[4문단]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지문 해제

다시 단기의 환율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물가는 경직적이고 환율은 신축적인 조정 속도 차이로 인해 오버슈팅이 발생한다는 것은 P의 첫 번째 원인을 재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독해 포인트

‘그런데’ 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글의 흐름을 앞의 내용과 연관시키면서 다시 주목하게끔 하는 역할. 다른 하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서술하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 앞으로 글을 읽을 때 ‘그런데’가 나온다면 다시 서술하면서 주목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글의 흐름이 뒤집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지문 해제

P의 두 번째 원인인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심리에 대한 정보가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 | |
|----------|------------------------|
| 불안 심리 |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 해외로 빠져나감 |
| |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 위축 |
| | 자국 통화 가치↓ 환율↑ |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㉔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지문 해제

장기에서의 환율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단기에서 이어지는 순서과정으로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정보를 처리하며 읽어나가자

|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 | | |
|-----------------|---|--|
| 단기 | 1 | 물가가 경직적 → 실질 통화량 증가 → 시장 금리 하락 |
| | 2 | 투자 기대 수익률 하락 → 단기성 투자 자금 유출 →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위축 |
| | 3 | 자국 통화 가치 하락 → 환율 하락 |
| 장기 | 4 | 물가가 상승 → 실질 통화량 원래 수준 복귀 |
| | 5 | 시장 금리 상승 → 해외 유출 자금 복귀 |
| | 6 |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균형 환율로 수렴 |

COMMENT

복합적인 문단이다. 단기에서의 환율이 괴리되어 움직이는 P의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었다.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이처럼 단기와 장기로 병렬적으로 구성하였고 단기에서는 P의 원인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앞으로 글을 읽으면서 이 문단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분류하면서 순서 과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습하자.

[5문단]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지문 해제

다시 핵심 정보로 돌아와서 정보를 서술하고 있다. 이제 오버슈팅의 원인을 파악했으니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수단의 수행에 대해 서술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문 해제

P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수단을 소개하고 있다.

| S | 정책 수단 시행 |
|-------------------|--|
| 물가경직성완화 (강제성↓) |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 |
| |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 |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지문 해제

P의 두 번째 원인인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직접성이 높은 수단을 소개하고 있다.

| S | 정책 수단 시행 |
|---------------------------|------------------------|
| 부정적 파급 효과 완화 (직접성↑) | 가격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의 세금 조절 |
| |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 제공 |
| | 외화 차입시 지급 보증을 제공 |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㉔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지문 해제

‘이와 같이’를 활용하여 정책 수단의 수행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정부의 정책 수단 | |
|-----------|--|
| 목적 | 미세 조정 정책 수단 활용 → 오버슈팅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 안정 도모 |

| | | | | | | |
|----|----|----|----|----|----|----|
| 문제 | 66 | 67 | 68 | 69 | 70 | 71 |
| 정답 | ① | ⑤ | ① | ④ | ③ | ② |

066 정답 ①

단기와 장기의 환율 양상으로 나뉘서 내용을 읽어나가야 했다. 특히 3문단의 장기의 환율은 다른 범주로 처리하여 관계를 파악했어야 했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의 환율도 변함 없을거라고 하는 설명은 적절치 않다.

- ② 단기와 장기로 환율의 양상을 나뉘서 내용을 비교대조하면서 독해해야 한다. 단기에는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통화량이 증가하여 시장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반면 장기에는 물가가 신축적이어서 물가가 상승하여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고 시장 금리가 반등하게 된다. 따라서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사전 정보 구간에서 서술된 P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면서 구체화 시키며 읽어나가야 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는 단기적으로 경직적이지만 환율은 신축적이다. 이러한 조정 속도 차이로 인해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다.
- ④ 사전 정보 구간에서 서술된 P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면서 구체화 시키며 읽어나가야 한다. 오버슈팅은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투자 자금 유입이 위축되고 자국 통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환율은 상승하게 되어 오버슈팅 정도가 커지게 된다.
- ⑤ 오버슈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반드시 메모하면서 읽어나가야 한다.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067 정답 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 ①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위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위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낮다.
- ②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가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있으므로 가시성이 높다.
- ③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를 말한다.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강제성이 낮지만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강제성이 높다.
- ④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지만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접성이 높다.

병렬적으로 제시된 정책 수단을 구분하면서 읽어나가야 한다.

068 정답 ①

- ② P의 원인에 대해 파악했어야 했다.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로 인해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선지다.
- ③ 단기에서의 오버슈팅 현상을 파악하고 장기에서의 균형 환율로 수렴을 파악했어야 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선지다.
- ④ 흐름을 잡아주는 ‘이와 같이’를 활용해 글을 집약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한다. 또한 <보기>로 보아 환율 상승이 부작용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한 선지다.
- ⑤ 오버슈팅의 발생 과정을 파악했어야 했다.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한다. 또한 <보기>로 보아 수입품의 가격 인상으로 부작용을 초

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므로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069 정답 ④

<보기 분석>

조건 : 국내 통화량이 t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되는 경우

- ㉠ 실질 통화량
- ㉡ 시장 금리
- ㉢ 환율

|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 | | |
|-----------------|---|--|
| 단기 | 1 | 물가가 경직적 → 실질 통화량 증가 → 시장 금리 하락 |
| | 2 | 투자 기대 수익률 하락 → 단기성 투자 자금 유출 →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위축 |
| | 3 | 자국 통화 가치 하락 → 환율 하락 |
| 장기 | 4 | 물가가 상승 → 실질 통화량 원래 수준 복귀 |
| | 5 | 시장 금리 상승 → 해외 유출 자금 복귀 |
| | 6 |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균형 환율로 수렴 |

- ① 물가가 경직적이면 실질 통화량은 증가한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b와 c 두 가지이니 일단 보류해둔다.
- ②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 하락하는 그래프는 a 하나밖에 없으니 ①,③,⑤ 선지를 제거한다.
- ③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한다. 상승 하는 그래프는 두 가지니 역시 보류해둔다.
- ④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상승하는 그래프 중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은 c밖에 없으므로 ②번 선지도 제거한다.

따라서 답은 ④번이 적절하다.

물가 경직성과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로 인해 발생하는 오버슈팅 과정을 넘버링하며 순서와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장기에서의 환율이 어떻게 수렴되는지에 대해 파악했어야 했다.

070 정답 ③

S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부는 오버슈팅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 ① P의 두 번째 원인을 해결한 S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 ② P의 두 번째 원인을 해결한 S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 ④ P의 두 번째 원인을 해결한 S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 ⑤ P의 첫 번째 원인을 해결한 S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071 정답 ②

‘노출되다’는 겉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②번과는 의미상으로는 부합하지만 ‘노출되다’는 피동의 의미를 지녔고 ‘드러내다’는 것은 사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바꿔쓸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① ‘괴리되다’는 것은 서로 어긋라져 동떨어진다는 뜻이므로 ‘동떨어져’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③ ‘초래하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뜻이므로 ‘불러온다’와 바꿔쓰기에 적절하다.
- ④ ‘복귀하다’는 것은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므로 ‘되돌아오면서’와 바꿔쓰기에 적절하다.
- ⑤ ‘도모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대책과 방법을 세운다는 뜻이므로 ‘피하다’와 바꿔쓰기에 적절하다.



이동글 수능국어 기출분석

본 교재의 저작권은 도란도란 출판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려면 도란도란 출판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